

野

聲

錄

留學

爲先 消息부터 傳하기로하자, 本
群에서 자주볼수있는 兄들은 全員
海外로 갔다. 張河龜氏는 獨逸 Hei-
derberg大學에 神學 專攻으로 떠
나고, 洪彰義氏는 美國 Minesoda
大學에 醫學공부로 가고, 郭商添氏
Westminster Choir College 에 가
서 教會音樂專攻中이고 韓哲河氏역
지 美國에서 神學공부의 精進中이
다. 그리고 李英瓊氏는 國家에 대
한 義務를 느끼고 志願해서 지금
鎮海 空軍士官學校에서 軍醫官으로
服務中이다. 이렇게 몽닥 떠나고 小
卒하나 남아서 함께 奉仕하는 敎
會를 孤守하고 있다. 다 有能한분
들이어서 優秀한 기록을 지어간다
는 소식이다. 그런데 留學이라면 좀
머리가 기웃거리지는데 그것은 첫
째 도매제 우리 民族같이 留學만
을 계속해야 하는 팔자가 또 어
디있을가? 옛날부터 그저 唐나라
나 淸나라나 하는 留學生야 제일
榮達의 길로 알아 그것을 두루기
에 겨를이 없었고 우리 代에는 日
本아니면 中國이라도 갔고 인제는
美國이거나 獨逸이거나 하여간 또
3,40老境에서도 일단 留學을 해야
되는판이니 留學生이 많다는 것이
民族의 자랑일까? 둘째로 요샌 젊

은이나 늙은이나 만나면 이제 송
우리제 美國에 들어갈 氣勢인데 이
것이 정말 向學熱인가 遊虐熱인가
? 어떻게 보면 兵役기피를 爲始
하여, 체면유지, 虛勢무기, 결혼조건
지급 生活의 캄부라쥬 低劣感모면...
하여간 별더러운배 다 適用되고 있
지 않나? 그많은 留學生中 眞實
로 艱難을 찾기란 밤길에 떠러
진 바늘 찾기다.

宗教的娼妓

“나는 당신없으면 못살겠어요”
娼妓의 사랑의 告白이다. 그리고 이
름도 丹心이니, 眞心이니, 一心이니
하여간 本來 貴重한 말들을 이름
으로 부치고 그런말들을 함부로 쓰
고 거기에 表情도 語調도 어색하
지않게 쓰여지는데 분한것은 방탕
兒들이 그말에 히통되는것 보다는
그 아름다운 말 自體와 더불어 그
말에 담긴 뜻이 유린되는일이다.
그런말들은 生命을 바치므로 남겨
진 (지어진) 한마디, 또 표정인것이
다. 이 귀중하다기보다 엄숙한 말
들과 표정으로 每日밤 오는 손님
의 땀흔돈을 노려 유린한다는 것
은 차라리 한사람의 傷口에 입대
고 피땀아 먹는것보다 잔인한일이
다.

그런데 이런 기막힌일이 宗教界

에서 橫行하는것은 모른척 할수없다. 하나님이니 사랑이니 十字架니 은총이니 감자니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으로”란 말은 글자 그대로 되풀이되어진 무서운 말들임이고, 또 전승된 語調나 표현도 어떤성도들의 가슴이 터지므로 되어진 모습일때 그 用語, 그 태도가 敎會안에서, 밖에서, 기도예, 대화예, 아무런 느낌도 없이 함부로 使用되는것은 기막힌일이며 이 말들들이 더욱이 人氣나 金品을 노리는 험작꾼들에게 사로잡혀 유린 당하고 있으니 정말 그리스도의 살에 부터 피뎌야하는 켜대제끼같은것들이 다 하는 생각이 난다.

佛敎의 中心인 “心”字가 娼妓에게 유린당해 無色해지고 人民이니 동무이란 좋은말이 공산당에게 사로잡혀 어색해졌기에 그말을 피해야 하게됐는데, 우리가 정말 그 귀중한말들이 저들에게 어떻게 유린 당한것을 回復 못할바에는 부득이 다른말이라도 發見해 내야겠다. 어떤 敎派는 예수와 기독교로 갈라졌다는데, 중당에는 예수니 기독교란 이름조차 저들이 끝끝내 잡고 히롱한다면 그것조차 주어버리면서라도 순수함을 유지하고 싶다.

나는 저들을 宗教의娼妓라고 부른다.

拜火敎가 得勢?

말이 났으니 말이지 요새 거리로 지날려면 “부흥회” 포스터에 글

자가 압호지만 거기다가 감자는 으메이 “불의 자자 X X 장노니 집자니 여자니” 했을때 갑자기 拜火敎가 이토록 많이 생긴것인가? 불이 보낸것이면 댜 神殿을 짓든지 해야지 왜 기독교 간판아래서 하며 牧師들이나 당회는 왜 교회를 拜火敎使者에게 제공해서 더럽히고 있는가? 참 豫言者는 쫓고 바알先知를 끌어드리는 이제뻔 같은 詛呪말을짓들 저들을 용납한 拜火敎者들의 머리우에 엘리야의 칼날이 뿔뿔날이 어서 와지피자

偽 善

주님은 僞善者들을 육해서 毒蛇의 종류를아 라고했는데 다시 생각하면 僞善이란 예뻐 동산에 기어든 뱀의 변장인듯하다. 가만히 기어들어 살금이 엇보다가 相對方이 속을 가능성이 보이면 점점 도도해지며 뱃속 고개를 쥐껴들고 정색하여 마주선다.

僞善 그것은 무엇보다 영리함아 그 예미다. 사랑(仁慈)를 댜 智慧란 악마의 最大武器다. 지혜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과 버부며 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보다 앞설려면 머리를 얻어맞는다. 지혜는 二位에 있기때문에 가끔 一位인 사랑을 엇본다. 그것은 二位에 있을때는 아름다운 것이고 一位로 오을때는 뱀이되는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된 사람은 이
 秩序를 유지해야한다. 첫째 사랑,
 둘째 지혜의 順序다. 이것이 順序
 를 바꿀때 거기 모른척이 때출된
 다. 僞善은 그 첫아들이다.

【意識은 주권인가?】

意識은 罪다, 意識은 파멸이다 의
 식은 죽임이다. 이런생각이 작구머
 리를 든다. 꽃이 고운줄 의식할때
 지들고, 버리가 가시를 가진줄 알
 았을때 亡한다. 로마가 스자로 큰줄
 을 몰랐으면? 시-자나 成吉思汗
 이 잘난줄 몰랐으면?

아담이 생명을 의식했을때 낙원
 을 잃었고, 가인이 아벨을 의식했
 을때 방랑의 길이 있었고, 가룟유
 다가 예수를 의식했을때 죽었고,
 베드로가 반석임을 의식했을때 干
 길 만길을 내리굴러 떠러졌다. 차
 라리 몰랐으면 그런 悲劇들은 없
 었을걸 悲劇이란 自體도 意識할때
 있는게지 客觀的인 悲劇이 어디있
 으리요.

사람의 구원이란 意識이 없어질
 면가?

그런데 이 생각이 이상한때까지
 발전된다. 언제 나는 光州 白영홀
 목사님과 함께 어떤 嬰兒院에 갔다
 嬰兒室로 들어서자, 무었에 굶주린
 生後一年未滿인 十餘名の 눈동자가
 내게 一時에 集中한다. 그눈동자들
 은 나를 焦點으로 군다. 나는 눈
 물이 핑 돌았다. 내게 줄게 있어
 야지?! 내게는 저들에게 줄 불

은 마음도 실상없다. 돈구름장 같
 은, 곧 지나갈 感情은 있으되 그
 건 아무 필요도 없는것이다. 내손
 에 닿는 어린애 얼굴은 기쁨으로
 붙어진다. 내손이 떠러지면 비죽거
 리다가 그만 물어버린다.

사랑! 그것은 말이 아니다, 觀
 念이 아니다, 붉은 피명이다.

저들에게는 그런것이 필요했다.
 업마의 젖이란 그것은 物體가 아
 니다. 그게 그대로 피다 사랑이다.
 피! 그래서 주님은 피를 마시라
 고 했다. 피를 마시람은 젖먹으란
 말이지 젖먹으란말은 사랑을 먹으
 란말이지 저 어린것들도 그런 피
 가 필요했다. 牛乳가 아니고 피가
 !

나는 그어느 한 生命에도 나누
 워줄것이 없으랴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메시아 意識이란 自發的인것인가
 ? 被動的인 것인가? 自動的이면
 疑心이 없지않을까? 주위의 눈초
 리가 (歷史를포함한) 自己에게 集中
 함을 느꼈을때 그 焦點에 自己가
 선것을 느꼈을때 처음은 그位置 (使
 命) 에 대한 감격이 있겠으나 다
 음은 그 位置에 세운 그 意志가
 自己에게 무었을 기대하는것인가를
 느낄때 초조하여 Entweder Oder의歧
 路에서 싸우다가 自己에게 진자는
 그대로 흘러가 버리고 自己에게 集
 中되는 瞳孔을 다른時代 또는 人
 物에게 轉嫁시키므로 自己를 떼

세상은 그를 預言者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받아드린줄가 메시아가 된다.

결국 예수는 메시아임을 意識할 때에는 죽을수밖에 없어 에루살렘으로 한자로 오몬것이 아닐가? 이런생각.

“對 話”

나는 어떤 친구와 대화 끝에 이런 가혹한것을 發見한다. “저음은 한時45分입니다. 나는 당신과 對話하고 갈라져서 여타일을 거쳤으나 그것을 일부러 記憶해야 할뿐이고 그대로 그때 對話를 계속하고있읍니다. 밤은 자꾸 깊어가도 종사 잠을 이루지못하고 얘기를 계속합니다. Monologue (獨白)는 그대로 Dialogue (對話)입니다. 혼자 있기로 대화가 끊어진다는 理由는 없습니다. 아니 엄격한 의미에 獨白이란 없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독백은 불가능합니다. “넌”을 못이 있어서 “나” 오는것입니다. 난 都大體 당신과 마주 앉지않았든 그 먼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리다. 그 말이 하나의 眞理라면 나혼자 發見한게 아니고 당신이 함께한것을 의의하며 그것이 生産이라면 당신과 더불어 生産의 受苦를 한것입니다. 그 까닭은 당신의 눈동자가 당신의 그 마음이 내안에 숨어서 희미하든것을 고집어내서 탄생하게 한것입니다. 사람은 男女가 肉體의 結合으로 한 肉體를 낳습니다. 그

번에 나는 당신과 結合해서 眞理를 낳습니다. 나의 친구여 나로眞理를 낳게하는 나의 마음이어”

대화란 創造의 受苦다. 對話란 生産하는것이다. 夫婦는 交接하여 아이를 낳는다. 사람은 對話하므로 眞理를 낳는다.

남아야할 生命體를 지닌 자나이는 그것을 넣어서 낳게할 작을찾는다. 다른面으로 보면 女人은 자나이에게서 남아야할것을 낳게하는 產婆의 역할을 한다.

眞理를 가슴에 받은 사람도 그것을 낳기위해서 작을 찾는다. 누가 그것을 낳게해야한다. 그것이 대화자이다. 弟子와는 다르다. 弟子는 아들이면 대화자는 아내다.

내 의로움은 이 대화자를 찾을인가?

對話란 다름아닌 “갈부림” 닌데, 예리한 칼갈아. 마주선 騎士의 결투와 같은!

眞情한 對話란 기도 밖에 있을까? 그것은 그 대화자는 絶對하신 이기때문에 참 기도야 말로 眞理를 낳게하는 生産의 수고이면서 生産의 기쁜 關門이지.

便所有感

海印寺엘 갔더니 便所에다가 解憂廊이라 卽 근심을 푸는곳이라고 해서 苦笑을 금쳐못했는데, 나는 언제 변소에서 無限이라는 생각을하다 머리가 아질해서 그대로 주저

앉을번한일이 있는데 한번은 어찌
굳이 없이 앉아있는 自己꼴을 생
각하고 웃지않을수없다.

아무리 고민해봐야 그렇지 머/
하는 생각에 아테와 같은 생각이
나서 기록했다.

[결작중 결작]

이일은 결작중 결작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主
人이라 해서

하나님을 추방하고 萬物을 내
것이라 고집하는 唯物哲人도

王座에 도사며 절만 받아 날
보내기에 사람은 同等이라는眞
理를 중시 믿지않을려는 급별 먼
류판에 꽃보 옷자락을 끄는 女王
도 살색이 희고 코크기에 고민하
여 “개와 有色人種出入禁止” 를
내걸어야하는 洋人들도

젊음과 流行과 香水에 自제
하여 눈곱낀 제할미와 마주앉
지않을려는 이웃집의 處女도
하루에 한차례씩은 어찌굳이없
이 우뚝히니 뚝간에서 뚝내쓰
이도록 꾸며진것은 결작중 결
작.

便所에서 無限을 생각한다. 이
게 어찌면 人生의 實相을 스케쥴
하는게 아닌가? Kierkegaard는 人
間을 有限과 無限. 可能과 必然의
綜合이라고 했는데 바로 便所에 우
뚝히니 앉아 無限을 생각하는 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韓國教會의 痛?

어떤 敎團의 青年聯合會에서 전
도 강연회를 열고 小卒에게 하로
밤을 배구기로 請했다. 그런데 小
卒에게 題하여 「韓國教會의 痛」 이
라고했다. 아무래도 그 題目에 마
음이 가지않아서 편 제목으로 바
꾸게하고 가만이 혼자 생각하니 화
가 치밀었다. 히필 내게 왜 그런 제
목을 주었을까? 나를 애당초에
毒說輩로 規定했던 말인가? 또는
그렇게 울며놓아 욕설을 하도록
마련하고는 저이들은 즐기고 나는
「모든때」에 찔질을 하잔 心思인
가? 그렇다고 저이들이 정말 제
몸에 생긴 痛을 醫師의 手術에
매끼듯 그렇게 敎會를 애껴서라고
볼수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그건그렇
고 정말 우리敎界의 痛이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상상이 手術刀」를 들어
왔다. 늙은암, 젊은암, 기적암, 主知
암, 牧師암, 평신도암. 이렇게 막잘
라 나가다보니 그만 敎界란 痛自體
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 韓國教會의 痛이
아니고 「韓國教會란 痛」으로 바꿀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니 苦笑밖에...